

최초폭로!

또 하나의 감옥 靑松보호소의 實相

金 相 敦

(運輸業)



제5공화국 7년간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한 시기였다. 「삼청교육대」 「靑松보호감호소」 「남영동대공분실」 등은 反인권의 상징처럼 불리운 이름들... 사진은 「삼청교육대」의 훈련장면.

1980년 5·17이후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 해 12월18일 공포된 사회보호법은 재범자들을 보호처분하여 특수한 교육 등을 실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이제 改廢될 운명에 놓였다. 이 수기는 81년 2월에 구속되어 징역 3년에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필자가 보호감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지은 경북 청송의 감호소에 최초의 입소자로 83년 3월 입소하여 87년 10월에 가출옥되기까지 4년7개월간의 비참한 감호소 생활을 실상 그대로 쓴 것이다. 지금까지 「삼청교육」에 관한 글은 많이 나왔으나 청송 감호소내의 상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편집자 주〉

『피고 김○○을 징역 3년 형에 처한다. 보

호감호기간은 7년으로 한다』

판사의 언도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에서 이제 죽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지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남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재판정을 나오며 나는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날을 손으로 꼽아 보았다. 40살이 넘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절망과 쓰러린 고통, 나는 그 당시 심경을 이 이외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지 이제 7개월 남짓. 나는 조금씩 내가 버렸고 또 그 댓가로 나를 버렸던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다. 다시 그 시절을 돌이킨다는 것은 고통과 함께 치욕스러움을 안겨준다. 오직 절대자에게 의지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버텨야 했던 안타까운 나날들, 높은 담벼락에 철조망까지 이중으로 둘러싸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쏟아지던 감시의

눈초리들, 가족마저도 찾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

나는 요즘도 가끔 감호소 시절의 꿈을 꾸곤 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팔을 뒤로 묶인 채로 개밥을 먹는 동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곧이어 몇 명의 교도관들이 나에게 달려들어 목을 퍼부으며 때리는 광경이 이어진다. 어떤 날은 자기들을 구해달라며 눈물로 아우성치는 재소자들이 보이기도 한다.

감호소의 꿈을 꾸고 일어난 아침이면 나는 낯선 천장과 이부자리에 흠뻑 늘란다. 그런 날이면 나는 애써 자신에게 말한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그래, 이제 나는 자유이다...

나의 어린 시절

나는 1955년 전라북도 ○○군 ○○읍 ○○리에서 태어났다. 위로는 형님이 세 분 계셨고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그리고 누님이 한 분 계신다.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확실치가 않다.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실 이외엔 아버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어머니에 관한 한 나는 그분의 고생에 대해 평생 밋밋함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나의 행위의 동기 곳곳에 어머니가 계시고 잘 못된 효심이 있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 나는 줄곧 축산업을 하는 사촌형님의 집에서 일을 거들었다. 주로 돼지사료를 나르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었는데, 우리에게 첫번째 불행이 닥친 것은 사촌형님의 축산업이 망한 72년도였다. 무리

하게 사업규모를 늘리려고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버린 것이다. 어느날 아침 일어나 보니 사촌형님이 없었다. 야반도주한 것이었다.

나는 여기저기서 돈을 꾸어다가 부화장을 시작했다. 7,8년동안 배운 것이라곤 병아리감별법 뿐이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부화장은 그럭저럭 운영되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기에 「A일보」 보급소를 차렸다. 그것도 운영이 잘되어서 한 달에 5,6백부씩 구독부수가 올랐다.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번다는 소문이 돌자 친구들이 한 두 명씩 찾아와서 돈을 빌어갔다.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돈을 꾸어주고 또 인심을 쓰다보니 그렇게 나간 돈이 술찮게 되었다.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어머니가 빌린 돈의 이자, 갯돈, 그리고 부화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저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가 빚독촉에 시달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왕창 벌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창고를 털었다.

당시에 생강 값이 한창 기세를 올린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강창고를 털어서 한뭇천 잠으려고 밤을 틈타 창고를 털어 생강 한 차를 실어다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재수인지 하필이면 내가 털어온 생강이 불량품이었다. 나에게서 생강을 사간 사람이 썩은 생강을 팔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다.

나의 첫 감옥생활은 이렇게 생강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73년도 가을에 잡혀가서 8개월 살다 나왔다. 그때는 별로 죄책감도 없었고, 다만 자신이 역세계 재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다.

아버」로 변해 있었다.

감호 7년 받고 청송으로

80년 계엄령이 떨어진 아래에서 나는 총 22건에 달하는 범죄행위와 몇 억원이 되는 장물액수로 매스컴을 요란하게 타면서 81년 2월3일 잡혔다. 나와 함께 잡힌 공범들의 전적은 더욱 화려했다. 어떤 사람은 1백26건, 어떤 사람은 2백건이 넘기도 했다.

잡히자마자 나는 자살을 기도했다. 그것은 죄의식에서가 아니라 형사들에게 당할 고문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혀가 3분의 1쯤 잘려나갔는데도 나는 살아났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기만 했다.

군산에서 1심을 받았다. 징역 3년6월에 감호 7년이 붙었다. 몇 번을 죽으려고만 하던 내게 1심판결이 날 때까지 감호가 붙었다는 사실은 무의미하기만 했다.

나는 관례에 따라 항소를 했고 광주교도소로 이감을 갔다. 그곳에서 나는 사형수 한 명이 기거하는 방에 함께 있게 되었다.

어느날 일어나보니 그 사형수가 없어졌다.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전율이 섬뜩한 충격과 함께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두려웠다. 인생의 종말, 차디찬 감방이 새롭게 되살아오면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때부터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자살기도가 얼마나 거짓이었는데를 깨달았다. 그 사형수의 평소의 모습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그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

74년도 초여름에 나와보니 부화장은 망해 버리고 「A일보」 보급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 값이야 할 빛도 이자까지 붙어서 상당했다. 나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택시를 몰았다. 초기엔 조금씩 집에 돈도 부쳐줄 수 있었다. 그런데 한여름이 되고 날이 뜨거워지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택시가 한철장사라는 걸 안 것도 그때였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택시를 타는 것조차 지겨워졌다.

군산에서 한 친구가 찾아오자 나는 선뜻 그 친구를 따라서 내려갔다. 그 친구는 「군산에만 가면 한탕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택시천장이 내는 열기에 밀려서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처음에 한 일은 좀도둑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지겨워 얼마 후에는 쌀창고를 털었다. 그때 형사가 덮쳤는데, 나는 형사를 때려눕히고 도망쳤다. 나는 그때부터 77년에 잡히기까지 잠수함을 탔다.

77년도에 잡혀가서 3년형을 받고 2년6개월만에 가석방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지나친 고생 때문에 폐암에 걸려 계셨고 여동생 또한 밝히기조차 싫은 몹쓸 병에 걸려 있었다. 나는 또다시 진창에 빠졌다. 그때는 정말로 막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고 싶었다. 다만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당시에 나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내가 잡혀가기까지 5개월 동안 동거했다. 나는 어머니는 물론이었지만 그 여자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더욱 돈이 필요해졌다. 이제 나는 단순한 도둑놈이 아니었다. 그 세계에서 도 내 이름을 대면 알아줄 수 있는 「장물

소。」하고 내가 물으면, 「그저 푸른 하늘이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며 희미하게 웃곤했다.

재판이 열리고 나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감호 7년을 언도받았다. 확정방으로 옮겨진 나는 주로 사형수나 장기수들과 몇 달 기거하게 되었다. 확정방에서 나는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을 한줄한줄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감호 1기생 /

83년 3월23일,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이른 새벽 기상나팔이 불기도 전에 나는 호송차에 올라 타야 했다. 감호소가 처음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도 말 부터였고, 최초의 감호소는 군감호소였다. 일반감호소는 81년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 83년 3월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3월23일 전국 교도소에서 2천3백명에 달하는 일반감호자들이 처음으로 감호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광주교도소에서는 4백20명이 함께 청송으로 이송되었는데, 7대에 분승하여 우리는 청송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호송차가 청주에 도착할 무렵 누군가 하나님을 부르며 숨죽여 울었다.

「어떤 개자식이야?」

교도관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확정방에 함께 있던 재소자가 나에게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또 입을 열었다. 불안한 술렁임이 낮게 일었다. 교도관이 또 딱 소리를 질렀다.

「어느 놈의 새끼야. 고개숙여!」

광주에서 청송으로 가는 길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는 그후 청송감호소에서의 생활 중에 느꼈던 어떤 공포의 순간보다도 우리를 얼어붙게 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세계로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만이 느껴볼 수 있는 공포였다.

청주시가를 지난 차는 거침없이 별판을 달려갔다. 우리의 불안은 다소 덜어졌다. 이 방향으로 가면 바다는 없다. 최소한 우리는 고기밥이 되지는 않는다.

마지막 인가를 지나 차가 20여분쯤 달리자 제1초소가 나왔다. 그리고 제2초소, 제3초소가 차례로 이어지고 직원아파트가 서 있었다. 이제 우리의 불안은 죽음과는 한 발 떨어져 있었다. 차가 멈추었다. 동시에 경비교도대원들이 호송차 입구를 막아서며 소리쳤다.

「고개 숙인 채로 내려!」

경비교도대원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새끼야, 내리라는데 왜 이래!」

누군가가 내리기를 주저한 모양이었다. 거침없이 욕설이 퍼부어졌다. 누군가 어이쿠 소리를 내며 땅에 꼬꾸라지는 소리가 났다. 다시 두려움이 서서히 고개를 치켜 들기 시작했다. 내 차례가 되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렸다. 빨리 가기를 재촉하는 경비교도대의 손에 들린 총부리가 언뜻 눈을 스쳤다. 내 가슴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다시 죽음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숨소리도 못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비교도대들이 신체검사를 했다. 그러더니 우리를 어딘가로 데리고 들어갔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손은 짝지긴 상태였다. 나는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그 흉악스럽게도 소문난 우리들

전과자들도 「人間」이기를 바란다. 감호소에 들어가 분노만을 키우는 것이 아닌 인간이 되어서 나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렇게 순하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끌려간 곳은 의외로 교회당이였다. 커다란 실내가 조용하기만 했다. 그리고 교도관 중에서 우두머리에 속한다는 사람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과 함께 지낼 〇〇〇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을…」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의외로 존댓말이 튀어나왔다. 우리들을 위로하는 그의 음성은 또한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스치는 안도의 빛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그때 내 표정도 그들과 같았으리라.

그러나 아직 긴장을 풀기엔 너무 일렀다. 그 사람은 감호소생활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들 들으며 죽음의 공포는 차츰 사그라 들었다. 우리들 모두는 몹시도 지쳐 있었다. 여자들 중의 몇 명은 쓰러지기도 했다.

나는 1동 3층 18방에 배정받았다. 교도관을 따라 맨 구석진 방으로 안내되었다. 사방은 검검하기만 하고 들어선 방에는 불빛 조차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죽여 울었다. 서러운 생각이 나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잠시 뒤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해 첫날밤 우리는 4명이 함께 있게 되었다. 들어서는 모두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얼굴에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치면 피하면서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나

는 그들의 얼굴조차 바라보기 싫었다. 그것은 모두의 마음이었다. 우리는 서로서로 눈길을 피하다가 취침시간이 다가오자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내가 나갈 날을 꿈아보았다. 숫자조차 세기가 귀찮아져 곧 그만두었다. 그저 멍하게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40세, 마흔이 넘어야 감호소에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나는 또다시 죽음에의 유혹을 느꼈다. 아, 어머니….

또 누군가 이불 속에서 쿵쿵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우리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한숨소리에 자기의 한숨소리를 섞으며 나는 첫밤을 밤했다.

다람쥐 체바퀴 도는 감호소생활

교도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6시(겨울은 6시반)에 기상해서 점호를 받고 아침을 먹는다. 하루종일 가부좌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점심을 먹고 운동을 나간다. 그런 뒤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취침나팔소리에 맞추어 잠자리에 든다..

나는 때분한 매일매일 속에서 가끔 운동시간에 보이는 군감호자들의 외역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태웠다. 머리를 기르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뺨뺨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로 일이 하고 싶었다.

지리한 매일, 아니 강요된 나태와 안일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온몸의 기가 어디론지 빠져 나가는 것처럼 나의 몸은 기운을 잃어 갔고 탄탄하던 근육은 호물호물해졌다. 우리는 바보처럼 빛을 잃어가는 서로의 눈을 마주하면서 이유없이 싸움질이나 해대곤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징벌이 뒤따르고 우리는 길들여져가고 있었다. 우리를 길들이는 또 하나의 수단은 순화교육이었다. 순화교육은 1년에 1번씩 받게 되어 있었고, 기간은 한달 간인데 교도소에서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2천3백여명이나 되는 사람 모두에게 돌아오기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했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재소자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을 교화하고 여러분이 생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방, 기술을 습득한 여러분이 하루 속히 정상인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말은 우리들의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에, 그런데...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지만 제한된 여건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 중에서 40명만...』

기가 막혔다. 2천3백명 중에서 40명이라니! 그런데 나는 역세계 운이 좋았다. 나이가 적다는 장점과 비교적 죄과가 가볍다는 이유로 일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날 부터 나는 취사장에서 잡일을 하게

되었다.

취사장에서 일하면서 그나마 시간이 모르는 사이에 흘러갔다. 취사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감호소의 한 단면을 알게 되었다. 감호소에서는 부식 때문에 심심치 않게 문제가 생기곤 한다. 그리고 누군가 부식비를 떼어먹는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기에 1인당 식비가 3백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경우 먹을 만한 부식이 나와야 한다. 사정은 그렇지가 못했다. 어쩌다가 고기국이 나올 때도 겨우 비계덩어리 하나가 떠다닐 정도이고 밀건 국물 위에 떠다니는 기름기만이 그것이 고기국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때로는 쉬어 빠진 두부나 찌개가 나왔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돼지죽이라고 불렀다. 나는 취사장에서 일하면서 『아니 맨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을 확인했다. 그런 부분은 더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예를 들어 1근의 고기가 예산에 의해서 배정되면 어느새 그 고기는 3백그램으로 변하곤 했다는 정도만 이야기해 두고 싶다.

취사장에서 몇개월 일하다가 조화공장이 세워지면서 조화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공장에는 수백명가량이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화기술은 말하자면 한물 간 기술이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조화 만드는 일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로였다.

공장에 관한 한 감호소 측에서도 할 말이 있었다. 워낙 지역이 오지였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입지조건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격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불만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고여오기 시작했다.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다. 어찌면 그들의 작업거부는 소극적인 하나의 저항이었다. 저항 뒤엔 반드시 보복조치가 취해졌다.

『어찌려고 이러는거야?』

처음에 교도관들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너, 가석방 별로 바라지 않는 모양이지? 알아서 하라고』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이 일종의 경고조치였다. 대부분 그 정도의 말이면 족했다. 그러나 간혹 그 정도의 협박으로 끄떡하지 않는 골통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그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위협, 그리고 독방신세를 면치 못했다. 나는 교도관들에게 개처럼 맞으며 끌려가는 재소자들을 여러번 보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만 내 가슴에 '은연중에 쌓여가는 불만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범한 죄과는 다치른 사람들이다, 여기는 교도소가 아니다, 그리고 교도소이어서도 안된다.

허울좋은 기술교육은 다음에 공 만드는 공장이 세워지면서 약간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고개

를 치켜 들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우리는 일당 5백원을 받았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감호소를 나갈 때 자신이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돈의 액수를 계산해보았다. 한달에 5백원이면 1년이면 6천원, 10년 살면 6만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생업보조비가 붙으면 몇십만원의 돈이 손에 잡힌다. 10년에 몇십만원이라. 게다가 생업자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확실하도 모르고, 어떤 때는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허울 좋은 기술교육

직업훈련생제도가 현실화되면서 나는 양재기술을 배웠다. 제대로 양재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생도 없었다. 시설은 형편없었고 당연히 기술을 정식으로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자격시험을 보면 반드시 70%는 합격시켜야 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었기에 교도관들은 우리를 때로 다그치기도 했다. 여기에도 반드시 뒷소문이 따랐다. 분명히 기술훈련을 위한 국가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자신의 호주머니로 돈을 챙기지 않고는 이렇게 설비가 허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소문의 진위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완치되지 않는 케양은 없다.

베스티틴^정

중외제약

시메티딘 - 리니데티에 이어 가장 최근에 개발된 피모티딘 주성분의 케양제로서 기비로 베스티틴입니다.

● 표준소매가격

40mg · 30정 · 54,000원
20mg · 60정 · 55,000원

그러나 재소자들은 확신처럼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훈련생 2년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자격 시험을 치는 날이 왔다. 나는 사회에 있을 때 배운 실력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양재기술을 익혔기에 자신이 있었다. 사람들도 「고형은 반드시 붙을거야」라며 나의 합격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나는 합격하지 못했다. 내가 떨어지는 대신 유명한 꼴통 하나가 대신 합격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나는 너무도 억울해서 며칠 밤을 설쳤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공정하지 못한 일 처리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전될 수가 없었다. 생각다 못해 나는 H를 찾아갔다. 그는 전과 6범에다가 징역 10년에 감호 10년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이었다. 그는 유명한 꼴통이었고 그것 때문에 독방 신세도 곧잘 지곤 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물론 그라고 뽀족한 수는 없었다. 몇 사람이 감호소 측에 항의를 해주었다. 항의에 못이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제가 번질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인지 그들은 나에게 합격증을 주었다. 합격증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출소와 감호소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합격증을 취득한 다음 나는 의무반에 배정받았다. 나오기까지 간병을 하면서 지냈다. 간병이란 주로 환자를 뒷바라지를 하는 일인데 나는 환자를 빨래를 하거나 그들의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호소에서 의무반 생활은 양반생활이었다. 어떤 때는 투약도 했고 때로는

주사를 놓기도 했는데, 처음에 주사를 놓을 때는 정말 비지땀이 흘렀다.

의무반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의약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같은 사람이 투약을 하고 주사를 놓는 것, 그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었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전문 의료인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약도 별로 없었다. 거기에도 어김없이 뒷소문이 따랐다.

「어제 약품이 들어왔는데 왜 하나도 없지?」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미 어떤 손들이 인 마이 포켓 한 거라구」

의무반의 문제는 정말 심각했다. 나는 환자의 목숨이 오락가락 했던 두 일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동맥이 끊긴 환자의 경우였다.

어떤 날, 동맥이 끊어지고 팔목의 살이 갈라진 재소자가 의무반으로 왔다. 당장에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려면 마취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환자는 멀쩡한 정신으로 생사를 껴매야 했다. 소독약도 제대로 없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몸 자체의 저항력이 큰 사람이었는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지만 만약에 수술부위가 끊기라도 했다면 그는 영락없이 팔목을 잘라야 했을 것이다.

다음에 기억나는 환자는 맹장수술 환자였다.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찾아왔는데 잘 모르는 담당자가 소화제를 주었다. 그러나 그 환자의 통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때굴때굴 굴렀다. 그래도 자꾸만 그 환자에게 소화제만 투약했다. 나중에 환자는 실신을 하고 말았다. 알고보니 맹장

염이었고 결국 복막염으로 되어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야 겨우 살아났다.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내가 그 꼴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싸이는 불만들

근로보상금 문제, 부식 문제, 의무반의 비형들은 우리들의 불만이 뭉치게 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거기에 출소자 선정기준의 애매함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조직적인 저항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우리의 저항형태는 개인적으로 꼴통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꼴통을 죽인다는 것은 혼자 단식을 한다거나 교도관과 맞짱을 뜬다거나 작업을 안하고 누워 있는다거나 하는 노골적으로 감호소내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혹한 형벌이 뒤따랐고 예외의 그 가석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협박과, 여러가지 괴롭힘이 있었다.

형벌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서신제한, 접견제한 같은 것이 있고, 다음으로 독서금지가 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고통인 독방수감, 그것도 모자라면 시승시감한 상태에

서 개밥을 먹는 것 등이다. 일상적인 구타나 기합같은 것은 뉴스거리도 못된다. 거기에 음성적으로 가해지는 협박과 린치 또한 무시할 것은 아니었다.

꼴통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그저 저항하는 사람들, 정말로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꼴치거리는 습관성 꼴통들이었다. 이런 부류는 정말로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호소내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부정을 도맡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왕초행세를 하면서 나중에는 가장 쉽게 감호소생활을 하고 가장 먼저 나간다. 그리고 온갖 자격증은 실력과 관계없이 도맡아 따낸다.

감호소내에서 담배는 한갑에 3만원에 팔린다. 감호소에서 담배를 구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감호소야말로 AIDS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우스개소리를 들은 일이 있다. 우리는 문밖 출입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감호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에는 감호소에서 힘있는 사람들과 꼴통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것 같다.

그런 꼴통들을 의도적으로 키운다고 재소자들은 말했다. 나 역시 당시에 그렇게

“땀흘리고 피로할 때”

갈증해소음료, 게토레이

- 신속한 흡수, 효과적인 갈증해소
- 포도당,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
- 체질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알칼리성 이온음료
- 담백한 맛의 저칼로리음료

게토레이
갈증해소음료

● 목욕후, 숙취, 스트레스, 운동후, 가운뎃배를 생각해서 마시는 알칼리성 이온음료
* 그레이프푸르트맛, 레몬맛

제일제당

민었다. 심심찮게 교도관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교도관들로 말하면 감호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안가」였다. 목욕탕에서 이발소, 거기에는 부인의 옷까지, 원하기만 하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재소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도소에서는 교도소장이 왕이고, 감호소에서는 감호소장이 대통령이다」

기실 감호소생활 초기에는 어떠한 집단적인 저항도 용납되지 않았다. 워낙 규율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감호소가 어째서 교도소보다 더 견디기 힘든것일까? 기술교육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우리는 허울좋은 감호제도 속에서 새 사람이 되기는커녕 더욱 구제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우리의 행동을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소문이었다. 우리를 최초로 경악시킨 사건은 大盜 조세형의 탈출사건이었다. 조세형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도둑이요 탈출범일 것이다. 그런 그가 탈출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청송교도소 특수감방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곳은 그야말로 흉악범들을 감호하는 곳이었고, 그때문에 순화교육의 내용도 흑독했고 보복적인 조치도 심한 곳이어서 심심치않게 저항이 일어나 때로는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한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들을 이용, 대도 조세형이 그 높은 담벼락과 이중석창살을 넘어 탈출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물론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다수가 부상당했다고 한다.

내가 직접 목격한 집단적인 저항은 두 번이었다. 물론 1소나 청송교도소에서는 훨씬 횡수가 많았겠지만 정확한 전수는 알 수가 없다. 86년초에 약 2백여명 정도가 단식투쟁을 한 일이 있다. 그때는 보안과장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어났다. 그곳에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형태가 아마 단식일 것이다. 행정법상 하루 단식을 하면 소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틀이상 단식이 계속될 경우 중앙관청과 해당 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소규모의 단식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대부분 제풀에 꺾여버리고 담당자는 자신의 처벌이 뒤따르는 일이라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담당 교도관들은 감시의 줄을 당겼다. 그때의 농성으로 보안과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부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마침내 1천8백명 단식투쟁

87년 7월경이었다. 우리는 자신들조차 믿기 어려운 「단식투쟁」을 4일이상 지속시켰다. 그것도 1,2백명이 아닌 1천8백여명이라는 전 재소자가 참여한 투쟁을 말이다. 그것은 행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나중에 교도관들이 말했다. 87년 7월이면 밖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던 시기로 알고 있다. 물론 감호소 내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직접 접할 수는 없다. 본래는 신문구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밖의 소식을 접하면 그만큼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일체의 바깥소식을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열려진 틈을 통해 자유의 소식은 스며들어 왔다. 그

당시의 민주화투쟁소식도 어느 결엔가 감호소 전체로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이 반드시 거기에 자극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감호소 초기부터 5,6년이 경과하면서 쌓여왔던 누적된 분노의 표출이었다.

우리는 출소하기로 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당신이 출소하면 곧바로 우리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가자마자 즉시 각 신문사에 사실을 제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 일은 일주일 전부터 계획되었고 감호소측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도 우리들 전원이 단식투쟁에 참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자신조차도 믿지 않았다.

결과는 의외였다. 1천8백명 전원이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그것은 치밀하게 짜여진 사전각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저변에 깔린 공유된 억울함이 이심전심으로 우리들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가 내걸었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부식을 개선하라. 법률이 정한 예산에 맞게 우리에게 부식을 달라. ▲가출옥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혀라. ▲매달 출소자의 수를 확대시켜라. ▲근로보상

금을 현실화시키라. ▲우리에게 감호생다운 대우를 해달라」

우리의 주장에 대한 반응은 그러나 냉담했다. 우리가 밥을 먹지않는데도 처음에 교도관들은 콧방귀만 쐬었다. 그래도 우리는 첫날 의욕적으로 단식농성을 했고, 우리의 구호를 복창하기도 하며 서로를 북돋웠다.

첫날 밤, 나는 우리의 투쟁이 신문에 나왔을까 하는 조바심에 견딜 수가 없었다. 아마 모두가 그 사실이 궁금했을 것이다. 사회에 우리들의 억울한 처지를 알려야만 무엇인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았다. 나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교도관에게. 넌즈시 물어 보았다.

「신문에 뭐 재미있는 거 안났어요?」

순간 교도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무겁게 일을 열었다.

「나기는 뭘나. 재소자들이 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들은 할만큼은 하고 있어」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나의 질문을 무시했다.

「전화가 오기는 왔더군요. 아마도 확인하려고 그런 모양이지? 우리의 대답은 변하지. 게다가 우리가 사실대로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무슨 더블

감기에는 화이투벤

초기감기에서 -
목감기,
몸살감기까지

한일약품

표준소매가격 : 102ml 2,000원/60ml 1병 2,200원

백이 있다고 그걸 기사화해. 안기부, 치안본부, 보안사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는 묘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기운이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크게 기대한 일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교도관들의 방치는 우리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해댔다. 그렇게 만 하루가 지났다. 사람들은 하나 둘 지쳐서 드러눕기 시작했다. 만 하루가 지나면서 교도관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제발 밥 좀 먹어. 먹으면서 협상하면 되지 않는가」

처음에 그들은 애원조로 각방을 돌아다니면서 말했다. 물론 통할 리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들의 배고픔의 유혹을 이용해 죽을 끌여오거나 평소에 주지 않던 부식을 내오기도 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군침이 들었고 배가 더 고프는 것같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장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소장은 우리들의 주장을 다 듣고 나더니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런 가당찮은 것들. 할테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굶어죽든지 어떡하든지 마음대로.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그의 그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우리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켰다. 그가 남기고 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운운하는 표현들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감격의 협상, 그리고 강제진압

3일이 지나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대부분 고령자이고 평소에 영양

상태들이 좋지 않은 때문인지 의무실에는 업혀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낙오자들이 하나, 둘 생겼다. 게다가 교도관들의 공작이 치밀하였다. 그들은 한 명, 한 명씩 세면장으로 데려갔다.

「자, 어서 이 죽을 먹어! 니깃 놈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러는거야? 자, 선택을 해. 독방에 가든지, 죽을 먹든지」

끌려나간 사람이 죽을 먹으면 조용하다. 그러나 그가 반항을 하면 듣기에도 괴로운 신음소리가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들의 앞에서 먹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개처럼 맞으며 질질 끌려갔다.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폭언과 폭행이 가해졌다.

「너희같은 것들을 사회에서 누가 동정인들 할 줄 알아? 너는 가출옥할 생각도 말아라」

한편 의무반은 마치 전쟁중의 막사처럼 신음하는 허기진 목소리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4일째로 접어들던 날, 서울에서 법무부 지도과장이 내려왔다. 우리들은 각 공장단위로 대표를 뽑아서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광경이 방송을 통해서 들려왔다.

「도대체 가출옥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나?」(재소자대표)

「그것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서류가 갖추어진 사람을 순서대로…」(지도과장)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가출옥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재소자대표)

「무슨 말이나?」(지도과장)

「그걸 몰라서 묻는거냐? 평소에 교도관들과 친하다거나 꼴통을 죽이는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재소자대표)

「조사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지도과장)

「한달에 출소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 처음엔 20명선이었고, 지금도 크게 늘지 않았다. 출소자 수를 늘려라」(재소자대표)

「가능한 수용하겠다」(지도과장)

협상은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교도관이나 소장과는 달리 지도과장은 분별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야기가 근로보상금문제로 넘어갔다.

「근로보상금을 현실화하라. 5백원은 너무하지 않은가. 게다가 직업훈련생의 경우는 50% 깎아서 2백50원밖에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생업 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 3백5십원씩 주기로 되어 있지 않은가」(재소자대표)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부식문제는 원래 책정된 예산대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지도과장)

협상을 듣고 있던 우리들은 다소 마음이 누그러졌다. 배고픔도 일시에 가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는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안타깝게 듣고 있었다.

「도대체 당신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우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가 없다. 당신이 한 말의 모두가 시

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재소자대표)

「나는 실무담당자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은 지킬 수 있다」(지도과장)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실무총책임자는 차관급이다. 그 사람을 내려 보내라」(재소자대표)

「……」

방송을 들으며 내게는 두 가지 마음이 엇갈렸다. 재소자들의 요구가 과하지 않느냐 하는 불안이 있었고, 반대의 마음에는 그래 구두의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저들은 우리의 단식을 종결시키기 위해 수작을 꾸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부쳐서 사회문제화되면 우리의 처지는 현격하게 개선될 지도 모른다. 소장의 말대로 사회에서 우리를 사람취급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기회에 정말 죽어버리든지 자유를 얻든지 양자택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들 마음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도과장은 서울로 올라갔다. 우리의 단식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 낙오자는 더욱 속출했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끌려나가서는 죽을 피먹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호소측에서는 강제진압의 근거를 찾기 시작했다.

다음날 서울에서 심의관(부이사관급)이

인간 100세를 추구하는 **일등재약**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케양치료제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큐란**

표준소매가격 150mg 60정 49,800원
300mg 30정 46,500원

내려왔다. 재소자대표들은 차관급이 협상에 임할 것을 계속 주장했다. 심의관은 난색을 표명하며 올라갔다. 그가 아무 약속도 없이 올라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강제진압의 예고였다.

심의관이 서울로 떠나자마자 각목으로 무장한 경비교도대들이 감호소를 덮쳤다. 1,2감호소를 합쳐서 경비교도대의 숫자는 약 6천여명에 달한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숫자는 6백여명 정도이다. 그들이 일시에 감호소를 덮쳤으니 결과는 어찌되었겠는가? 더우기 우리들은 나홀 이상을 굶어서 지쳐 있었다.

우리들은 숙절없이 두들겨 맞았다. 이빨이 왕창 나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정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벌어졌다. 아, 그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라니!

다음엔 규율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주모자로 지목된 8명은 다른 교도소 특수 감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송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질질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또다시 숨도 쉬기 힘든 암흑이 우리를 덮쳐 왔다. 진압에 대한 포상으로 감호소 내의 교도관들에게 금일봉이 지급되었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우리는 감호소 초기의 공포의 생활로 되돌아갔고 교도관들의 눈은 감시의 눈초리로 번득였다. 그들은 재소자들을 움직여 오면서 입버릇처럼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다.

『풀어준 게 잘못이라니까, 저런 것들은 초장에 기를 잡아아되는 거야!』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들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는 그때 주동자급으로 몰려서 마산교도소로 이감

되었다고 알려진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감호소내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장을 부리는 다른 재소자와는 달리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단식투쟁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이현희, 나이는 40세 가까이 되었다. 70년도에 소년부로 송치되어 16세에서 부터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하여 30세에 벌써 전과7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여자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실직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그녀는 삐뚤어져갔다고 한다. 그녀는 소매치기였는데, 주로 잘사는 사람들의 돈을 슬쩍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옛날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때는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은 모두 도둑놈처럼 보였다고.

그녀는 몹시도 인정이 많았다. 남의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특히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극진한 애정을 쏟았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옥바라지로 반생을 보내신 어머니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현재 신학을 공부하면서 재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마산교도소로 강제 이감되면서부터 공부도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 당시 단식농성의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부추기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했다.

도재근씨는 84세의 고령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사람의 전과라는 것을 들추어 보면 모두들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지

끔 그가 감호소로 온 마지막 이유는 1천 원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는 나가봐야 일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냉대만 받으니까 감호소가 훨씬 편하다고 말한다. 그 말고도 청송감호소에는 70세이상의 고령이 3명 더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제는 나가서 죽고 싶다』고.

『우리도 인간이고 싶다』

나오기까지 나는 계속 의무실에서 간병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감호소에서는 2년마다 한번씩 재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그것을 자동심사라고 하고 본인이 서류가 다 갖추어졌을 경우 요청을 하면 청원심사를 받게 된다. 갖추어야 할 서류는 신원증명서, 취업증명서 그리고 자격증사본 같은 것들이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가석방심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는 담당검사 서기가 하는데 몇 가지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묻는다.

감호소에서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감호소에서 스스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취업보증 선 사람이 당신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는 가졌는가. 왜 종교를 가졌는가. 기술자격증은 땀는가. 몇 가지를 땀는가. 마지막으로 감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받으면 일단 재소자들은 검사서기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어떻게 쓰면 나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설문지를 받아 들고서 감격에 몸을 떨었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눈치껏 설문조사에 응했다. 모든 것을 원하는대로 대답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사실이였다. 그것은 종교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아마도 감호소생활 중에 나에게 하나님은 없었다면 나는 일찌기 좌절해버렸을 것이다. 감호소에 있는 1천8여명중 1천2백명이 예수교신자였다.

내가 설문을 받으면서 가장 양심에 꺼렸던 부분이 감호는 필요한가하는 설문에 응할 때였다.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나는 꺼리낌 없이 대답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감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무사히 검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87년 10월에 감격의 출소일을 맞았다. 나오자마자 나는 취업을 했다. 그리고 현재 7개월이 지났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겠다. 지금의 감호소는 교도소와 다를 바가 없다. 그곳은 교육하고 개천시키는 곳이 아니라 단지 가두어 두는 곳이다. 우리들은 곱 징역을 살면서 사회에 대해서 더욱 분노를 느낀다.

사회보호법이 「인권탄압기구」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인권탄압 장치라면 사회보호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범죄자들을 재교육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올바른 정부라면 우리를 재교육시켜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인간이고 싶다. 감호소에 들어가서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나오고 싶다. □

새로운 지식의 샘
과학동아